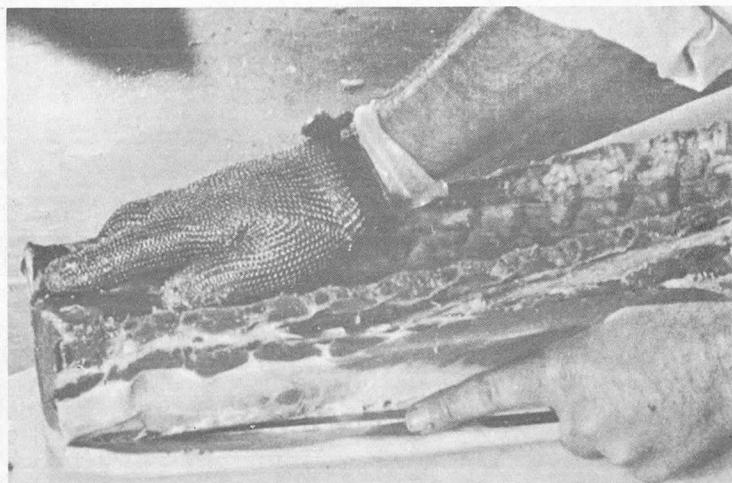


서기 2000년, EC의 돈육시장 전망

- 홍보부 -



○ 전 식육시장에 있 어서의 발전

2000년까지 EC제국의 식육 총 생산량은 8% 증가한다고 본다. 1인당 소비량은 86.7kg에 달 하리라고 예상되며, 이것은 1987년에 비해 5.0kg 증가한 것이다. 전시장내에서 다음과 같은

식육사이에 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① 쇠고기 소비량은 대략 25 만톤 감소

② 송아지는 10% 이상 감소

③ 양고기 시장은 12만톤 증가

④ 돼지고기 소비량은 1백30 만톤 (+11%) 증가(왜냐하면

쇠고기의 생산, 가공제품 모두 감소하고 돼지고기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남으로써 그런 것이다.)

⑤ 닭고기(鳥肉)의 수요도 최고로 신장(+20%)세를 나타낸다.

이것은 1백10만톤 증가에 상응하는 셈이다. EC시장이 점차로 동질화 되어가고 있는 징후가 보이나 각국에 있어서 소비자는 그들대로 서로 다른 자세와 바램을 가지고 있다. 근대, 선진, 건강적인 EC북부 여러나라와 지중해 연안의 보수적인 지역의 소비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식육에 대한 자세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쇠고기의 이미지는 계속 떨어지나 거꾸로 닭고기의 이미지는 오르고 있고 기타 Red meat

특집 / 서기 2,000년, 세계의 돈육시장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의 이미지는 일정하다.

○ 단일 시장의 설립

단일시장의 설립 움직임이 점점 강해져 오고 있다. 1987년 서명한 SEA에 의하면 1992년 까지는 일체의 장해를 극복하고 단일 경제구역을 만들 것이라고 한다. 유럽 연합설립을 위해 이미 진행중이며 1988년 2월 수피회담에 의해 합의하고, 각 구역간 농업구조의 불균형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금할당을 한 바 있다.

그래서 유럽 연합 달성을 위한 정치가와 기업가의 걸어갈 길이 명백하게 되었다. 따라서 식육산업은 EC를 하나의 거대한 국내시장으로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곳에는 3억2천만의 인구가 살고 있고, 수출량 보다 소비량쪽이 오히려 많기 때문이다. 투자준비가 되어있는 기업에 따라서는 이 단일시장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능률이 떨어지는 기업에는 보다 더 압력이 가해져 오게된다. 그래서 산업의 합리화 촉진은 국내 수준보다는 오히려 EC 수준으로 맞추게 될 것이다.

○ 단일시장의 결과

① 각 나라 사이에 사무적 요



구에 관련된 생산비가 절감된다.

② 국경에서의 수속이 간소화되므로 운송단가가 감소한다.

③ 각 나라의 서로 다른 표준에 따르려고 소규모로 고급품을 생산해야 할 필요성이 없게 된다.

④ 소비업자가 보다 더 자유롭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 양 돈

쇠고기, 양고기와 달라서 돼지고기는 EC로부터 다소의 원조를 받고 있으나, 그 경쟁력의 강도를 확보하려면 보다 더 시장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EC돼지고기 통합체(Pigmeat Regime)는 해외시장의 낮은 가격에는 과세하고, 수출시는 세

를 경감해 줌으로써 EC생산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조는 사료의 높은 가격을 메꾸어 주기 위한 것으로서 EC 양돈산업의 기본적인 비능률성을 채워 주지는 못한다. 국내에서의 시장원조는 시기적으로 주로 생산 과잉시에 개인 저장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돼지고기는 EC의 농산물 총액의 10%를 점하고 있어 EC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보다 중요한 식육이다. 1987년에는 식육 총생산량의 46%에 상당했었다. 각 나라간, 지역간에 있어서 또는 대규모 생산과 전통적인 소규모 생산에 있어서도 양돈장의 구조는 서로 다르다.

이들 요인과 단일시장에는 점진적인 이행으로 시장쟁탈전이 치열해지며 결과적으로 양

특집 / 서기 2,000년, 세계의 돈육시장 어떻게 변할 것인가?

〈표1〉 EC의 돈육수급표 (1987~2000년)

(단위 : 천톤)

구 분	1987년	2000년	차 (%)
생 산 량	12,550	13,740	9.5
+ 수 입	75	60	-14.3
- 수 출	426	300	-30.0
= 소 비 량	12,186	13,500	10.8
일 인 당 소 비 량 (kg)	37.7	40.9	8.5
자 급 자 족 율 (%)	103.0	101.8	-

돈장은 얼마간 아직도 본래의 형태를 지속해 오고 있고, 몇 나라 또는 몇개 지역에서는 그래도 꽤나 근대화시켜 왔으나, 기타의 지역에서는 아직 종래대로 소규모 생산을 계속해 오고 있다.

구조상 변화의 주된 요인으로는

① 평균적으로 축사의 규모는 1975년에서 1985년 사이에 2배 이상이 되었다. 그래도 EC의 평균은 아직도 낮다.

② 동 10년간 ('75~'85년)에 EC의 축사 소유자의 수는 감소되어 연간 6%의 감소에 상응한다.

돼지가 최고로 집중되어 있는 곳은 네덜란드, 벨지움의 국경이다. 이곳에서는 1973년~1987년에 걸쳐서 평균 연간 2.7%의 생산증가였으나, 주기적인 굴곡이 있어 80년대 초기는 상승율이 부진했다.

○ 소 비

과거 15년동안 다른 전식육

과 비교하여 돼지고기의 이미지가 한계점까지 악화되어 왔다고 하나, EC의 수요분석 결과 분명해졌다. 이는 주로 닭고기의 더욱 거센 공세 때문이기도 하다.

이쯤되면 다소간은 돼지고기의 이미지 증진을 시켜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2000년까지는 EC내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10.8% (년간+0.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 기간동안 1인당 소비량은 8.5% (40.9kg) 늘어날 것이다(표1).

○ 국제 무역

수입 : EC는 여러가지의 수입제한 제도를 통해서 효과적인 수입 규제가 되도록 하기 때문에 결과로는 EC비공급자의 장래성은 한정되어 있다. EC는 Pig Cycle에 의해서 단기적인 굴곡은 있었으나 수입은 하향되어 왔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유럽의 여러나라, 특히 동유럽 여러나라와 스웨덴이 중심이 되어 왔다.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EC의 이러한 하향경향은 계속되어 질 것으로 믿어진다(표1).

수출 : 1980년의 절반은 담보 상태였으나 70년의 반 이하는 수출이 증가해 왔다. EC이외의 나라와 거래는 덴마크가 압도적이다.

왜냐하면

① 최고수준의 동물 위생관리 ; 덴마크는 이 거대한 수입 시장에 생돈육을 수출하는 EC 유일의 수출대국이다.

② 고도로 발달한 가공산업으로 인해 덴마크는 또한 가공 제품의 수출대국이기도 하다.

EC의 수출은 총 수출의 2/3를 점유하는 2개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표2).

〈표2〉 대만의 돈육수급표

(1985~2000년)

(단위 : 천톤)

구 분	1985년	2000년
생 산 량	831	1,210
- 수 출	103	210
= 소비량	728	1,000

○ 극동시장(주로 일본) : 대만 등 다른 극동의 공급국이 점점 지배하고 있다.

○ 미국시장 : 타 공급국들이 시장 개입책을 강구하고 있는 까닭에 돼지고기 및 가공제품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 시장에 대해서는 동유럽 여러나라들이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